

## 돼지고기 자급률을 정하고 관민이 이를 지키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농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것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제 농촌의 형편이 좀 좋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농촌을 떠나 공사장에서 일하며 도시에서의 향락과 압구정동의 야타족·나타족들을 보고 지존파라는 범죄조직을 조직해서 귀향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 왔다면 부족한 농촌 일손도 덜어주고 얼마나 좋으련만 한번 뼈뺀 생각으로 많은 희생을 보게 되었다.

화순군에서도 발견 되듯이 농촌의 빈 집을 개조하여 범죄단체의 아지트로 만드는 것을 보며 왜 이렇게 되었는데에 대한 입씨름이 한창이다. 경찰은 이런 일이 전국에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촌은 아지트, 도시는 범죄 현장으로 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면에 1개 있는 지서의 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택시기사의 여인 납치 살해 사건이나 신사동 네거리에서 백주 폭력배들의 살해사건 같은 것들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27일 금년도 미술대전 입선작이 발표되었다. 대상에는 정석수 화백의 남부정류장이 선정되었는데 세대간·도농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가의 눈에, 심사위원의 눈에 우리사회의 갈등관계가 심각한 것에 공감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국가, 사회, 산업이 붕괴하는 데는 외부 침략에 앞서 이러한 갈등과 공직자의 부패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50조원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탈세액을 산출하면 7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재원부족을 핑계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더군다나 낸 세금까지 공무원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니 기막힌

66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이러한 일들에 농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없는 계획으로  
 또는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99

노릇이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해당 농민에 지원한다는 설명도 총 징세한 세금액의 '92년도에 51.5%, '93년 60.8%, 그리고 '94년도에도 5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 육성된다면 이야말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금년에 약 2만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어 일본에 이어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도의 쿼터 물량을 지키는 것도 힘겹게 되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이러한 일들에 농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없는 계획으로 또는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농가가 원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지원, 금리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분뇨처리, 공동방역문제 등 몇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지

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94년도 4/4분기만을 앞에 두고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라도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돼지고기 자급률을 정하고 이러한 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계획과 실천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95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이고, 이어서 다음 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로 선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선거철이 되면 가정주부, 일반 소비자의 표를 의식해서 지나친 저물가 대책을 추진하여 마구잡이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하지만, 양돈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관세, 부가세 등 영세율 조치나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한 유통시설 등에 투자없이, 부족하면 수입한다는 물가정책이 앞서는 한 개방화시대를 대비할 수는 없다.